파피용

32143654 이지영

우주항공국의 과학자인 이브 크라메르는 '엘리자베트'라는 요트경주 챔피언의 하반신을 차로 치이기 된다. 사과를 하기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지만 그녀는 그를 계속 피하기만 한다. 재판후 그녀에게 사과도 거절당하고 우연히 서류를 뒤지던 중 아버지 프로젝트 뭉치를 보게된다.

억만장자 가브리엘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연 이브의 프로젝트 내용을 TV에서 보고 이브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를 원했다. 이브는 가브리엘을 만나 프로젝트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천 년 이란 시간동안 이천명의 남녀를 태우고 50대를 이어가며 시속 평균 200만 키로미터로 간다는 내용이며 프로젝트 이름은 태양범선인 V.S. 이였다. 가브리엘은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가지며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태양범선에서 마지막희망을 뜻하는 D.E.라고 프로젝트 제목을 바꾸었다. 한편 태양범선에는 조종사가 필요했다. 그는 예전 그와 사고가 있었던 엘리자베트를 염두하고 '사틴'을 보내 그를 설득하게한다. 이후 엘리자베트는 엄청난 월급과 이브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어 찐 살을 빼주고 마약중독 및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범선에 오르기로 한다.

그러나 UN에서도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부에서도 군대를 보내기도 시작하였다. 가브리엘은 2중 담벽을 만들고 경비원을 고용했지만 실제로 군대가 도착하자 용병들은 도망을 쳤다. 결국 빠르게 이륙을 시도해 대기권 밖으로 가서 중력을 가동하고 강에 물도 부었다. 이제 우주선안에서는 사유제산도 없고 술도없고 정부도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범선안 갈등으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가브리엘이 사망하고만다.

갈등은 계속되고 투석기를 만들어 전쟁까지 하며 범선 내 전등이 깨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1200년이 지나고 파피용호에는 남자5명 여자1명 총 6명이 남게되었다. 착륙선에 탈 수 있는 인원은 총 2명으로 여자1명과 남자1명이 타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자가 뱀에 물려 죽어버렸고 남자는 자시느이 갈비뼈를 이용해 사람을 만들고 끝이난다.

지구상의 생물들은 끊임없는 진화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인간은 1200년이 자나도 전혀 발전이 없었다. 초기 범선은 사유재산도 없고 정부도없고 종교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지도자가 생겨나고 종교도 생겨나고 결국 정부마저 생겨난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본래의 사회에서밖에 살 수 없는 동물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만약 지구의 생물들이 점점 말라 죽어가고, 식량이 떨어져 지구 전체가 기근에 허덕이는 등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되어 새로운 행성으로 떠나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 어렸을때는 우주여행이 자유로워지면 달에도 가보고 우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상상을 자주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다. 다른 행성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 또한 파피용호의 사람들처럼 인간 사회의 악습을 반복할 것 같다. 또, 내가 만약 범선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절대 타지 않을 것이다. 우주선안에서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일지 의문이 든다. 그냥 거대한 번식장이라는 생각만 든다.

마지막 부분에서 뱀에 물려죽은 여자로 인해 혼자 남았다는 고독감을 견디지 못해 갈비뼈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보고 역시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인간사회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또 그 한계점을 생각하여 인간사회가 나아갈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